

무안공항서 중국 장가계·사천 바로 간다

제주항공 13일 장가계, 29일 사천항공 취항 일본 노선 줄이고 中·동남아 노선 적극 발굴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최고 관광지인 장가계, 사천지방을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 속에 일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남도가 중국, 동남아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전남도는 1일 "일본 노선이 줄어들면서 중국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주항공이 13일부터 중국 장가계에 신규 취항하고 29일부터는 중국 사천항공이 부정기 취

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노선은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이 일본 오사카, 기타큐슈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10월 들어 제주항공이 오사카 노선을 주 7회에서 4회로 감편하고, 주 4회 운항하던 후쿠오카 노선은 중단하는 감소세가 완연하다.

전남도는 이밖에 중국 산야, 광, 동남아 등 신규 노선을 각 항공사 및 국토교통

부 등과 협의하고 있어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 무안국제공항 노선은 지난 6월까지 13개 노선이었던가 오사카, 기타큐슈, 마카오,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노선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상하이, 연변, 도쿄, 오사카, 타이베이, 방콕, 다낭, 세부,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은 9개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유일한 국내선인 제주노선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무안군 등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주 7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잔류시키고, 제주항공이 주 2회 운항(부정기)하도록 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27일 동절기 스케줄부터 무안국제공항 철수를 예고한 바 있고, 티웨이항공은 같은 날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의 현재 상황이 일본 노선 감편·중단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노선 다변화를 통해 올 한 해 100만명 이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39만명)보다 85% 늘어난 72만명(잠정)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대표음식 한자리서 맛 본다

11일~13일 강진만 생태공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청년부 음식경연대회 확대

올해로 26회째를 맞은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의 맛과 멋! 세계로·미래로'라는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13일 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남도음식의 품격과 가치를 현대적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젊고 생동감 있는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시작돼 전국 최고의 음식 축제로 자리잡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는 맛의 고장 전남의 으뜸가는 대표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부 음식경연대회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특별 부스를 설치해 청년층의 참여가 기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유학생·관광객 유치를 통해 남도의 전통음식 맛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추수감사 의미를 담아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22개 시·군의 대표음식을 하늘에 바치는 상달제를 열고, 이에 앞서 음식을 나르는 진설 행렬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남도음식전시

관에는 주제관과 시군관으로 나눠 다양한 색채와 그윽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남도음식 상차림을 전시한다.

남도음식 피크닉홀에서는 22개 시·군의 고유한 단품요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소량, 소포장 판매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즐길거려다.

남도음식 명인과 강진 대표 음식을 품격 있게 한 상 가득 담아낸 '남도밥상 한상차림'도 운영해 남도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받아 이틀간 하루 100명 한정으로 명인밥상과 강진밥상도 판매한다.

전시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식 시식과 함께, 남도 별미 요리 교실, 음식만들기 체험 등 관람객과 호흡하며 재미를 더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다.

남도음식 경연대회는 음식명인, 초청 셰프, 관객이 함께 참여해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남도의 단품요리를 발굴하는 대회로 진행된다. 축제 주요 참여 프로그램인 '남도밥상 한상차림', '천오백인 오찬 초대' 등은 축제 누리집(www.남도음식문화큰잔치.com)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지 참여할 수 있다.

행사추진위원회 측은 인천, 경기지역 대지열병 발생에 따른 차량 소독시설, 대인소독기 등을 행사장 내·외부에 설치하는 등 특별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1월 2일~3일 빛고을 드론페스티벌 개최

광주시는 미래 신성장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31보병사단에서 '2019빛고을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드론페스티벌은 드론배틀월드컵, 드론소프트웨어(SW)코딩, 미니드론레이싱, 광주관광 드론 촬영영상 공모전 등 6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이번 대회에는 제31보병사단, 북구청, 광주시민 등 5000여 명의 전국 드론 마니아가 대거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참여는 드론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2019빛고을드론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4일까지 하면 된다.

광주시는 드론배틀월드컵, 드론소프트웨어(SW)코딩, 드론클래쉬, 미니드론레이싱, 제로백타입어택챌린지 등 5개 종목의 우수 참가자에 대해서는 시상상, 교육감상, 북구청장상, 시의장상 표창과 총 9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광주관광 드론 촬영영상 공모전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완성도, 작품성(활용가능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등 총 6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시상상 표창과 총 5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향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광주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또 행사 기간에는 드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산업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구직자를 위한 '4차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일자리 교류의 장'이 열려 취업준비생과 진학을 앞둔 중·고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5개 자치구 상생회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서구 리미다 광주호텔에서 5개 구청장들과 시장 주요 현안 공약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삼호 광산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태 남구청장.

전남도, 지역 인재 글로벌 인재로 육성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전남도가 지역인재를 세계인재로 키우기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인재육성"을 목표로, 꿈을 키우는 미래인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창의·융합형 선도인재 등 3개 분야 16개 세부추진도 마련했다.

전남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시군, 교육청, 대학교, 관계기관과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어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꿈을 키우는 미래인재 분야의 경우 '예능영재 키움', '행복한 꿈, 가족캠프', '도올인재학당',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예능영재 키움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교습을 지원하고, 가족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는 2박3일 소통캠프로, 도올인재학당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제자들이 4박 5일간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각각 운영된다.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이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인재 분야는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글로벌 노벨캠프',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글로벌 비전캠프', '도비 유학생, 글로벌 리더 육성', '글로벌 리더스 현장연수'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문화체험캠프는 세계적 안목을 갖고 꿈을 키우는 해외문화체험을 지원하고, 노벨캠프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노벨상을 수상한 해외연구소를 연계한 실험 및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창의·융합형 선도인재 분야는 '전남스타 200인 육성', '블루 이코노미 선도인재 육성 아카데미', '명인·명장 제도 운영', '비즈니스 리더스 아카데미', '지역공동체 리더스 아카데미', '도민행복 아카데미'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조선업 경쟁력 강화 나서

서부권 중소·영세 조선업종 맞춤형 현장 환경기술 지원

전남도는 오는 18일까지 3주간 대불산단 등 중소·영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는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LNG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동안 영업 부진, 잦은 직원 교체 등으로 중소·영세 조선업종 종사자들의 환경 전문성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서부권 조선업종 중 전라남도에서 관할하는 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

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현장 기술 지원을 한다.

지원 내용은 전남도와 영암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동종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이 대기·폐수 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등 환경 분야 현장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보완 등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환경정책 동향, 관계 법령 준수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실시해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방침이다.

김삼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기술지원은 조선업종의 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0 2 1 4 3 0 2

J1 4 point 0 8 1 7 4 9 0 0 0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8 0 0 0 0 0 0 0 0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